

투데이 칼럼

소통을 위한 상황판단기법

현대는 소통의 시대이며 이 미지시대이다.

소통의 시대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인정받고 주목받을 수 있다면 호감 받고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가정의 가족 단위 조직이나 모임, 직장, 사회생활에서 소통이 잘 되는 조직은 성공한 조직이며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스피치 생활에서 주목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소통의 기법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말하는 처음효과(Primacy effect)를 노린다.

모임에 나갈 때 가장 이슈가 될 만한 딱딱딱한 최신정보나 뉴스를 준비한 다음, 소개를 마친 뒤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될 때 뉴스를 터뜨려 주면 좋다.

자신이 미리 준비한 내용을 거침없이 이야기하면 전체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는 동시에 굉장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때 정치, 종교, 성과 같은 이야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좌중을 압도하는 마지막효과(recently effect)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이것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김 양 옥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이다. 사람들은 흔히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사람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판단한다.

이런 지런 토론 끝에 마지막에 제일 지위가 높은 상사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경우가 마지막 효과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시상식이나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효과적인 것들이다. 손님이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 했을 때도 배웅을 잘해야 감명 받고 좋은 사이가 된다.

셋째, 그림자효과(Shadow effect)도 주목을 받게 만드는 좋은 기법이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멋들어진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적절하게 읊으면 의외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현장에서 거친 일

을 다루는 사람이 모임에서 부드러운 상수를 멋지게 부르거나 사냥승을 한다면 그 모습에 환호를 보낼 것이다.

간혹 자신에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독특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매력을 발산하는 한 방법이다. 넷째, 좋은 자리를 잡아야 한다.

흔히 "목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한 업종이 출저어 늘어난 거리에서 장사가 가장 잘되는 가게는 어디일까? 입구에서부터 3분의1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가게가 가장 목이 좋다고 한다. 입구에 있는 가게는 정보파악 차원에서 살펴만 보고 끝자락에 있는 가게까지는 힘들고 지루하여 좀처럼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생기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므로 대화에서도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모임에서는 어느 자리에 앉

것이 좋을까? 흔히 가운데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답은 상대방의 가장 오른쪽이다. 예를 들면 네 개의 물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선택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어떤 물건을 선택할까?

심리학자 비스베트와 윌슨은 이러한 실험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우리는 보통 물건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따라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물건에 시선이 오래 머물고 덕분에 그 물건을 선택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다고 한다.

신문에서 오른쪽 상단에 광고비가 가장 비싼 이유도 사람들의 이러한 무의식적 행동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대보다 낮은 장소, 맞은편이 아니라 나란히 앉은 장소도 이미지 관리나 친근감을 느끼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사람의 귀 중에서도 오른쪽 귀에 대고 말한다면 효과가 좋다는 것이다. 결국 오른쪽 귀가 정보처리 기능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이다. 소통 잘하고 주목받는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소홀하기 쉬운 작은 것도 소중히 하며 상황판단 잘해서 장소, 시간, 사람에 맞는 스피치기법을 주목받는 스피치를 생활화 하자.

사 설

노인 일자리 더 늘려야 한다

노인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한다. 일하고파 하는 이들이 많은데도 일자리 공급은 한정돼 있는 까닭이다. 노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일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소망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가 오래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게 얼마큼이나 노인들의 피부에 감지되었는지 의문이다. 약속대로라면 지난해의 3만23명보다 1만26명이 늘어난 4만499명의 노인 인구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맞다. 지난해 813억 원을 투입했다고 했으므로 더 많은 돈이 올해 집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데 말이다.

어떤 이들은 젊은이의 일자리도 부족한 판에 노인 일자리까지 신경쓰느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정신 태도가 아니다. 상노인이란 물리도 60대들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들은 하나같이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노인 일자리 마련은 중요한 문제이다.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 많은 이들이 허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낭비이다. 노인 실업 문제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노인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있다면

살림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여생이 즐거울 터이다. 그러면 지자체도 그만큼 복지 수요에 대한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 전북 지역에 노인 일자리가 더 필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노인 일자리 마련은 지자체만의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말인데 기업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지역에 기대한 만큼의 노인 일자리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의 대다수는 시간제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소망스럽다. 하루 이를 소일거리에 지나지 않는 일자리는 좀 그렇다. 출근과 퇴근을 위한 교통비가 아쉬울 정도라는 불만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보수가 적어서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거나와 기업들도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동참해줘야겠다. 지난 수년간 약속한 일자리가 실제로는 절반 정도 수준에 그쳤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하나같이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노인 일자리 마련은 중요한 문제이다.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 많은 이들이 허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낭비이다. 노인 실업 문제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노인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있다면

저출산 문제 적극 대처해야

전북도는 저출산 문제에 마음을 주어야 한다.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통계청이 때때마다 인구 동향을 보고했는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누계 혼인 건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1%가 줄었다. 출생아는 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백명이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 보고가 있었던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렇게 인구 문제가 심화되는 모양새이니 지역의 미래가 염려된다.

전북도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무진 애를 써야 되겠다.전북도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별 다르게 진전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책이 있는 것처럼 말만 꺼내놓고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것은 저출산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그동안 잇을 만한 저출산 실태를 보고했지만 그게 변명을 위한 보고였지 싶다. 관계 전문가들과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핵심과제를 선정해 그 이후에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었는데 그후 성과가 어땠는지 알 수가 없다. 정말이지 이대로는 지역의 앞날

이 어렵다. 저출산의 고착화 때문에 데드 크로스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이다. 사실이지 데드크로스 현상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많아 맞는데 우리 전북의 경우는 그게 아니다. 출산 문제가 이쪽보다 덜 심각한 다른 광역시도들도 5개년 출산 정책안이며 출산 장려 추진단을 조직하는 등 출산 캠페인이 활발하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전북도는 기존 대책 그대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전북도는 저출산 문제를 심상하게 여겨선 안 된다.

전북도는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아이낳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위해 보다 차원 높은 출산 장려책을 내놓아야겠다. 전북도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2백만 도민을 운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180만 명대를 간신히유지하고 있는 게 팩트이다. 출산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중에 고령화 고착 현상이 굳어지고 있는데 이대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늘고 있는데 신생아 울음소리는 드물게 듣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독자재언

빗길 안전운전 요령

가을 태풍이 연속으로 형성되면서 작년에 비해 올해는 가을 비오는 날이 부족 많아졌다. 그렇다면 빗길 운전 시 안전운전 요령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한다.

첫째, 무조건 감속해야 한다. 맑은 날보다 20% 감속 운행해야 하며, 폭우 시에는 50% 감속하여 주행해야 한다. 특히 물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반드시 50%이상 감속하자.

둘째,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차량 간 거리를 평소보다 30~50%이상 확보하여 돌발상황에 대비하자. 고속주행 때는 마른 노면 위를 달리는 것보다 정지거리가 40% 길

어진다.

셋째, 비가 내리게 되면 낮에도 어둡기 마련이므로 전조등을 켜으로써 시야 확보와 내 차 위치를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 미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넷째, 수막현상을 잘 피해야 한다. 흔히 수막현상은 마모된 타이어나 물 웅덩이를 지날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일기예보에서 많은 비가 예상된다면 미리 타이어 점검을 하고, 특히 물웅덩이를 지날 때 브레이크(혹은 엑셀) 밟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운전자 모두 안전운전 요령을 습득하여 사고없는 안전한 운행 하기를 바란다. 최혜진 고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검술 선보이는 폴란드 기병



6일(현지시간) 폴란드 비르사바에서 '비르사바 승마의 날' 행사가 열려 폴란드 기병대원이 검술을 선보이고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